

지역 소식통



군산여성라이온스클럽 연탄나눔

군산여성라이온스클럽(회장 고영이)은 최근 수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2세대에 연탄 600장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군산여성라이온스클럽은 한 마음 한 가족의 정신이래 작지만 부드러운 여성의 섬세함을 발휘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가진 2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이날 봉사활동은 회장 및 회원 등 직원 등 20여명이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변을 훈훈하게 했다.

고 회장은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진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하림, 사랑의 장학금 전달

하림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익산에 위치해 있는 남산초등학교를 비롯해 망성초 석불초 송북초 여산초 용성초 흥왕초 등 7개 학교 졸업생 46명에게 장학금 138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장학금은 지역의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하림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지역초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하고 있다.

이문용 대표이사는 "지역상생과 동반성장은 기업이 갖춰야 할 당연한 의무이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LG화학 익산공장 노동조합 행복나눔마켓에 쌀 400kg 전달

LG화학 익산공장 노동조합(이부장 김광택) 및 회사 관계자들이 익산행복나눔마켓을 찾아 쌀 400kg을 전달했다.

이 쌀은 2017년 노동조합 익산지부 정기대의원대회 행사에서 축하 화환 대신 받은 것으로, 2012년부터 매년 노사가 합동으로 같은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광택 익산지부장은 "항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선도에 LG화학 익산공장 노동조합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2147명을 모집한다.

참여지역은 만65세 이상(시각형·인력파견형 만6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오늘부터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10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선발되면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 3시간, 월 30시간을 근무하며 월 22만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뉘며, 공익활동은 인근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서 통합모집하고(1인 2개 사업까지 신청가능) 시장형·인력파견형 사업은 해당 수행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간여행, 전북투어패스로

카드 한 장으로 도내 시군 주요 관광시설·60여개 유료시설 무료 이용 가능

군산시는 보다 더 저렴하고 편리한 군산시간여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판매 예정인 '전북투어패스'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카드 한 장으로 ▲전북 14개 시군의 주요 관광시설과 60여개 유료시설 무료 이용 ▲전라북도 시내버스 무료 이용(1일권 5회, 2일권 8회, 3일권 11회 이내) ▲도내 30여개 공영주차장 최대 2시간 무료 이용(추가요금 별도) ▲1000여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공연장, 각종 체험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도 자유이용시설, 버스, 주차장 단말기에 터치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입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www.jbtpass.kr), 쿠팡·인터파크·옥션·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과 도내 관광안내소 및 주요 관광시설 43개소에서 가능하다.

투어패스는 기간별로 1일권, 2일권, 3일권, 한옥마을권, 수요자 맞춤형(선택형)과 시내버스 이용여부에 따라 관광형 및 교통형으로 4200원부터 3만9000원까지 다양한 상품이 있어 여행계획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



면 된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관광객에게 알뜰한 여행의 기쁨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5~50%까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념점 123개소를 모집하고, 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응대요령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투어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세민금융센터와 함께 대규모 학습회의·세미나 등 단체

참가자 공동마케팅 ▲문화관광해설사, 군산역사 문화탐방지도사 등 교육 실시 ▲관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홍보 ▲풍리장 등 자생단체 회의시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군산시는 15일부터 발매 예정인 전북투어패스 이용 활성화와 전북도 14개 시군과 연계해 토탈관광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토탈관광 '전북투어패스' 알리기 본격화

익산시가 이달 15일 출시되는 '전북투어패스' 알리기에 본격 나선다.

전라북도 사업추진에 맞춰 홍보뿐 아니라 전북투어패스를 익산 대표축제와 자체 홍보 캠페인 등과 연계하여 경품 및 기념품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라투어패스 판매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북투어패스는 익산 보석박물관 등 도내 60개소의 주요 관광지와, 26개소의 공영주차장 및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관광패스이다. 전북투어패스 소지자는 도내 60여개의 특별한 기념점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익산시는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과 합일에 위치한 액션하우스 물품체험농장이 자유이용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전북투어패스 구입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얼플러스 키금속보석전문매장센터 내 입점업체, 익산그랜드플러스호텔 등 100여개의 쇼핑·숙박·음식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석박물관의 경우 전라북도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야간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가 더욱 풍부해졌을 뿐 아니라, 주얼플러스와도 인접해 있어 전북투어패스를 이용 시 보석박물관 무료관

람과 보석함인 등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합인정보 확인과 전북투어패스 구입은 투어패스 홈페이지(www.jbtpass.kr)에서 가능하며, 쿠팡, 인터파크, 옥션, 티몬 등 인터넷 쇼핑몰, 도내 주요 관광시설과 관광안내소 등 43개소에서도 판매할 예정이다.

익산시에서는 익산역 관광안내소, 보석박물관 관광안내소, 미륵사지 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한다. 가격은 종류에 따라 8,300원에서 39,900원까지 다양하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장자도 펜션단지 건축 불허가처분 승소

행정소송 3차례 변론·한 차례 현장검증 후기각 최종 마무리

지난해 군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 활동까지 이어진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군산시는 2015년 12월 건축 불허가와 관련해 장자도 펜션단지(다가구주택) 건축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군산시가 육도면 장자도리 150-9번지 일원에 신청된 28동 다가구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건축물이 입지여건을 고려하기보다 개발논리에 치중 선유팔경이라 불리는

고군산군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해 소멸할 상황에 이르는 단계별 계획을 방지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1월 13일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는 같은해 11월 17일부터 군산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투표 서명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행정심판은 2016년 3월 28일 기각됐으며, 행정소송 또한 3차례의 변론과 한 차례의 현장검증 후 2017년 2월 9일 전주지방법원의 선고결과 기

각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군산시가 승소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사익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불허가처분을 했고, 행정심판·소송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법률검토와 논리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불허가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선포되어 만족스럽다"며 "원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소신껏 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학교법인 원광학원, 주요 보직자 연수 실시

학교법인 원광학원(이사장 신명국)은 법인 산하 기관인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원광디지털대학교·원광대학교 각 병원 팀·과장급 이상 보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원광학원 보직자 연수'를 실시했다.

'원광!!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를 주제로 원불교 영산 성지 및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이번 연수는 첫날 이사장 신명국 이사장의 주제 강연에 이어 중앙일보·JTBC 홍석현 회장이 '경쟁에서 얻은 나라를 위한 10가지 소망'을 주제로 한 특강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원광학원 산하 각 대학 및 병원의 현황과 2017년도 계획 발표를 비롯한 상호 정보 교환을 통해 원광



학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각 기관 보직자들이 소통과 교류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연수를 주관한 원광학원 최황 법인 사무처장은 "이번 연수는 지난해 원불교 100주년 및 원광학원 7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원불교 2세기의 희망찬 시작과 더불어 원광학원의 꽃피울 100년을 다짐하고 자축하는 의미가 깊다"고 연수개최 취지를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선정

군산대학교(총장 나의균)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돼 5년간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극심한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자체의 취업지원 강화와 대학을 통한 종합적, 입체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청년층에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의 청년고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미취업 졸업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군산고용노동지청,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청년 고용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나의균 총장은 "군산대학교가 특화된 교육(인증) 프로그램과 선순환적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운영하면서 매년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군산대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청년 고용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오산면 일대 AI 항원검출, 차단방역 총력

익산시는 최근 오산면 오산리 172-13 일대에서 폐사된 오리 노랑부리백로로 수거하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AI 검사 의뢰한 결과 H5 항원이 검출되었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는 폐사축 발견 지점으로 10km를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예찰지역에 있는 9농가 316,700수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2, 15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사축 발견 지점에 방역대를 설치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하고, 축산과 방역차량 3대, 농협 무인

헬기 3대를 총 동원하여 발견 주변과 민경장 철새도래지 일대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역대에 있는 9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 매일 축사 진입로와 주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당장 살처분 조치 등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야생조류가 축사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류가 피체 살포와 그물망을 설치하고, 외부 차량이나 사람이 농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2016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

종사자 1명 이상 사업체 대상

군산시는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를 내달 3일까지 실시한다.

전국 사업체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시점에 통일된 조사기준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2016년 기준 현재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군산지역의 대상 사업체수는 2만 3,574개에 달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내용은 사업체 기본현황 및 사업의 종류, 조직 형태, 연간 매출액 등

총 13개 항목이며, 41명의 조사원이 해당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를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9월까지 검토와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 공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통계법에 의거 매년 2월 실시하는 국가 지정 통계로 지역의 산업구조와 사업체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할 경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임피면,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군산시 임피면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쌀·밭 직불제 사업을 오는 4월 28일(논 이모작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직불제 지급요건은 지급대상 농지 및 대상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격은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 등 특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경 신청자는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소유주 경작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1000㎡ 미만 농지 경작자, 타인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농업인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임피면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직불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일과 14일을 집중 운영일로 정해 한 사람의 농업인도 누락되는 일이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종진 임피면장은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이 불가능한 만큼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